

제6회 저팬 크리에이션(Japan Creation) 프리뷰 (3)

11. 승부처는 여러 갈래로

瀧善(愛知縣)은 원래 실의 개발, 제조, 판매를 주로 하고 있어 실의 단계로부터 차별화를 도모한 텍스타일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번 전시회는 컴팩트사를 사용하면 강연 소재를 수록한 동사의 오리지널 샘플 북의 수록 상품 120 색을 중심으로 제안한다. 그들 조합에 의한 다채로운 텍스타일을 전시한다. 또, 상시 재고에 의한 소로트 대응도 어필한다.

니트 원단에서도 같은 실을 사용하여 횡편과 환편을 하여 그 원단을 코디네이트 제안하는 등 어패럴 단계에서의 기획을 의식한 제안을 할 방침이다.

木村治(大阪府)는 원단상으로써 드레스 캐주얼 셔츠 소재를 면, 마, 양모 등 폭 넓게 공급한다. 이번 전시회에 춘하전이라는 것도 있어 마를 사용한 원단 프렌치 리넨을 중심으로 제안을 한다. 프렌치라는 이름의 유래는 프랑스산 마를 원료를 한다는 점에서 온 말이다. 일반적인 아이리시 리넨에 대하여 봄·여름다운 밝은 이미지를 강조한다. 전시하는 원단의 색 사용도 신선한 것을 갖출 방침이다.

동사는 지금까지 JC 에 3 번 참가하여 왔는데, 그 때마다 조직 배리에이션을 자카드나 도비직, 고밀도 직물 등으로 넓혀 왔다. 전시회에 참가 회수를 거듭함에 따라 내방객에게도 새로운 기획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 왔다고 한다.

카네다직물(靜岡縣)은 재킷이나 팬츠 등 외의용 텍스타일을 제안한다. 동사는 임가공 주체의 제직 업체였으나 10 년 전 쯤부터 자주 기획한 텍스타일의 생산을 시작하였다.

지금까지도 JC 에 출전, 면 주체의 직물 제안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마라든가 양모와의 교직 기획을 전면에 내놓는 등 시즌을 의식한 마 100% 기획도 가지고 참여한다. 그 외에 염축이나 피치 기모 등의 가공으로 독자성을 강조, 원단의 질감으로 내방객에게 소구한다. 어패럴과의 직접 거래를 목표로 하고 있어 먼저 만짐새의 차이를 보여주고 싶다고 한다.

龍田紡績(兵庫縣)은 과거 여러 번의 출전으로 특수한 실을 사용한 니트 원단의

어필을 하여 왔다. 본업인 방적 기술에 의하여 실로부터 차별화를 도모한 선염 니트 원단을 중심으로 설치하여 이번에도 제안한다. 전시회 참가물은 현재도 제작 중이지만 원면으로 단일 혼면한 실에 의한 니트 원단, 그외에 혼방에 의한 얼룩 실을 사용하는 등으로 다채로운 표면 변화를 내 놓는다.

지금까지의 JC 에 대한 출전으로 다채로운 실을 제작할 수 있는 점이 업계 내에도 침투하여 오고 있어 이번에도 고품질 소재를 사용한 선염, 후염 니트 원단을 제안한다.

12. 새로운 상거래 흐름을 포착 신규 개척

宇仁纖維(大阪府)는 박지 무지염을 중심으로 소프트하고 레토로한 태를 연출한 빈테이지 시리즈나 江戸小紋 등의 일본 문양 프린트 시리즈를 주로 제안한다.

동사는 박지의 합섬 복합 직물, 니트를 주체로 여성복지의 기획, 제조 판매를 하고 있다. 날염 바탕, 무지염, 날염, 플로키 등 약 6,000 점의 현물을 보관하고 소로트·다품종·단납기로 대응하고 있다. 재고가 끊긴 경우에도 7 10 일 정도로 리피트가 가능하다.

상거래 흐름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자사의 강점을 살린 봉제 메이커나 OEM 메이커 등 신규 고객을 획득, 또, 복지만이 아니라 가방이나 잡화 등 자재 분야에도 용도가 넓혀지고 있다. 이번 프리뷰전에서도 더욱 확대를 도모한다.

渡과일직물(愛媛縣)은 이번 JC 프리뷰에 첫 출전하게 된다. 면, 양모, 마, 화합섬 등 다채로운 소재를 사용하여 오거닉이나 수모 혼용, 이중직이나 편면 스트레치, 경량 직물 등 다채롭게 제안한다.

캐시미어나 카멜, 염소 등을 사용한 수모 혼방 시리즈는 2004 년 12 월의 JC 에서도 호평이었다. 이번 추동용으로 현물로도 대응한다.

新内外綿(大阪府)은 텐셀이나 면 등의 피부에 부드러운 셀룰로스 소재를 중심으로 고급 여성 복지로 최적인 감성과 질감을 가진 니트 텍스타일을 전개한다.

이번에는 두 가지 신상품을 주체로 내 놓는다. 하나는 텐셀과 트리아세테이트를 브랜드한 ‘크리스탈 파인’, 혼방, 교편을 포함하여 다채롭게 제안한다. 또 하나가 트로피칼 양으로서 텐셀을 베이스로 바나나, 파인애플, 하이비스커스 섬유를 각 3% 복합하고 있다. 경량감과 샤리감이 있는 상쾌한 이미지로 가공하였다.

과거 두번의 프리뷰에서는 미세스 어패럴을 중심으로 새로운 거래를 시작하였

다. 자사 방적 공장의 혼방이나 복합 등 고도의 기술을 배경으로 실로부터 일관된 기획력을 살려 금후에도 미세스 어패럴에 대한 제고를 높여 간다.

크레센드 요네자와(山形縣)는 실크를 중심으로 한 천연 섬유로 고급감이 있는 소재를 변화가 풍부하게 개발하고 있다. 복지나 스톨용으로 다중직이나 강연사에 의한 표면 변화, 이소재와의 조합으로 염축 가공 등의 후가공 물건까지 다채롭게 전개하고 있다.

이번에는 견, 양모 축융 이중직, 자자풍 스티치직, 새로운 벽사를 사용하여 조리한 감이 있는 소재 등을 내놓는다. JC 프리뷰에는 첫 회부터 연속 참가하였다. 강점인 스톨로부터 시작하여 여성 복지에 이르기까지 신규 거래선을 넓혀 왔다. 또 다른 산지와 연계도 할 수 있어 신상품 개발에 반영되고 있다.

13. 히트 상품이 이어서 등장

妙中파일직물(和歌山縣)에서 05 추동용으로 스테인레스 안과 면으로 커버링한 실을 사용한 면 벨벳이 인기 상품이 되고 있어, 이번 JC 프리뷰전에도 전시회에 참가한다. 동사는 물리브덴을 5% 이상 혼입된 고급 스테인레스 안을 사용한다. 동 스테인레스 안은 부드럽고 굴절 강도가 높고 부식에 강한 등의 특성이 있다. 형상 기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름이 생길 염려가 없다. 원단에 미세한 요철감이 있고, 벨벳을 캐주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본격적으로 제안한 것은 연초부터이지만 일약 인기 상품이 되었다.

이외의 새로운 상품으로써 원단 값을 레귤러 제품보다도 20% 낮춘 가격 경쟁력이 있는 코튼 벨벳, 인디고를 로프 염색한 실을 사용한 본격적인 데님 퍼, 동자카드, 리넨 단사를 사용한 자카드, 벨벳 등을 제안한다. 레이온 팬시 퍼는 새로운 작품의 꽃 무늬도 내놓는다.

大江(京都府)은 실크 텍스타일 전문 메이커이다. 한 세대를 풍미한 워셔 가공과 피치 스킨조 실크 텍스타일을 가공하는 데로도 알려져 있다. 이번 전시전에서도 주력 상품은 헤비 실크나 실크 플록키 가공, 실크/양모/모포텍스 혼용한 후쿠레 자카드, 실크/양모/큐프라 혼용한 자카드 등이다.

동사가 이번에 내놓은 베이비 실크는 55 가지이다. 요즈음은 일본에서도 베이비 실크 메이커는 없어지고 있다. 실크/양모/모포텍스 혼용한 후쿠레 자카드는 10 월 프리뷰에도 출전하여 호평을 받았다. 이번에는 매스 견본으로 날염도 제안한다.

또, 동사는 25m 부터 소로트도 수주할 방침으로 어패럴에 보다 사기 쉽게 한다.

오씨(大阪府)는 매 시즌 실을 교호로 짠 직물로부터 랏셀 레이스, 니트, 엠브로 이더리, 소폭의 부속품, 그들의 후가공품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전개한다. 이 때문에 같은 실을 사용함에 의하여 세트 상품을 기획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는 06 춘하용으로 레이온/마 혼용한 톱사(모변수 26, 30 수 수준)로 기획하고 있다. 색은 5 색으로 전개하고 다른 색이나 의장 연사도 별도 주문에 대응하고 있다. 또, 동사는 원래 레이스나 수공예적인 가공이 강점이지만 레이스나 핸드 크라프트적 상품의 수요 증가에 따라서 이번에 한층 충실히 하고 있다.

니트 메이커인 세리오(愛知縣)는 연간 1,000 점을 넘는 새로운 무늬를 개발하는 등 독자의 기획 생산력으로 정평이 있다. 스포츠 분야를 강점으로 하지만 프리뷰 전에서는 일반 어패럴 용도의 개척에도 주안을 둔다.

이번 전시회에서 주력 상품은 편성하여 뒤집은 보더, 핀홀 메시, 아일렛, 오리 지날 멜란지 색상, 멀티컬러 자카드 등이다. 동사는 독자의 메시 장치를 가지고 있어 큰 메시도 넣을 수 있다(특허 신청 중). 이 때문에 통상은 봉제에서 뒤집기를 하는 화장 메시도 같은 편성지로 형지를 사용하여 넣을 수 있다.

핀홀 메시는 더블 페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청량감이 있으면서 원단 밑이 투과해 보이지 않는다. 실의 번수는 80 40 수이다. 또, 멜란지 상품은 05 추동으로부터 41 색의 샘플 북을 전개하고 있다.

14. 보다 높은 성과를 구하여

더·교토(京都府)는 교토의 날염, 원단 염색, 기모, 자수, 봉제 등을 다루는 기업의 집합체이다. 현재는 각사가 개발한 제품에 연휴를 살려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활동이 중심이 된다.

이번에도 면직물에 형태안정 가공과 후염을 조합시킨 스프래시. 박(箔)이나 글리터 가공 등 “빛 나는 것”과 기모를 조합한 ‘샤인’ 등을 내 놓는다. JC 프리뷰전에 참가하는 것은 두번째이다. 田村浩章 회장은 지금까지 JC 본 전시회에도 참가하여 왔으나 보다 상담에 힘을 주기 위하여 전시회에 참가한다고 한다.

木村織物(滋賀)은 이너, 파자마용 크레이프, 요루 생산이 주류였다. 새로운 몰두로써 2, 3 년 전부터 여성, 신사 아우터용이라든가 주거 생활 관련용품에 용도를 넓혀가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 의류 용도에 실크와 모달 레이온인 교직 요루 원단이라든가 면 40%×텐셀 60% 등을 여성 내의용으로 내놓는다. 모두 60 80 수를 사용한다. 그 외, 트렌드를 의식한 마 혼용한 원단도 여러 종류 출품할 예정이다.

이미 관서에서는 여성용 원단으로 구체적인 상담도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금후에는 관동 방면으로의 상권 확립을 목표로 한다.

坪由織物(福井縣)은 스테인레스 실을 사용한 텍스타일을 중심으로 제안을 여성복으로 한다. 동사는 8년 전부터 실크 제직 기술을 활용한 스테인레스 실을 사용한 직물에 몰두하고 있다. 면, 레이온, 실크 등과 조합한 스테인레스 섬유는 주름이나 광택 등 독특한 표정을 가지고 해외 전시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얻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부 미세스 어패럴에서 채용되는 등 서서히 주목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다른 소재와의 조합이라든가 스트레치 기능 등 배리어이션을 강화하여 제안, 새로운 고부가 가치 원단으로서 내놓는다.

増田크레이프(滋賀)는 직포 기술에서 차별화를 강조한다. 단일 원단상에서 위입울수를 변화시켜 보다 강한 표면 변화를 갖는 텍스타일을 내놓는다.

소재도 면을 중심으로 마나 실크 등 여러 종의 실을 교직하여 독자성이 높은 변화 조직의 원단 기획을 여성 캐주얼용 중심으로 제안한다. 변화 조직의 기획은 6년 전부터 몰두하여 2년 전부터는 실의 선정에 몰두하는 등 자사의 특징을 보다 강조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였다. 현재, 이러한 원단을 중심으로 새로운 판로의 확대에 몰두하고 있어 이번 전시회도 새로운 판로의 확대에 향한 전시를 한다.

15. Only One 소재에 주력

森井織物工場(和歌山縣)은 면에서 양모, 아크릴, 복합물 등 다채로운 소재를 사용한 파일 직물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파링감이기 때문에 원단 전체가 두껍게 되는데 파일을 길고 짧게 조정한다든가 색으로 계절감을 연출한다. 춘하용으로는 요철감이나 광택감, 표면감으로 밝기나 가벼움을 나타내고 있다.

다품종·소로트·단납기의 딜리버리 체제를 베이스로 남성, 여성 의류 용도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가방이나 슬리퍼 등 주변 잡화로도 거래가 넓어지고 있다.

吉井타월(愛媛縣)은 타월 직기를 활용한 홈 웨어라든가 캐주얼 웨어용 텍스타

일을 제안한다. 와플이나 삼중직, 스트레치사 교직, 면·마 교직 등 다양한 거즈를 중심으로 캐주얼한 셔츠 등도 내놓는다.

이번 전시회가 JC 프리뷰 첫 출전이다. Off white 를 주체로 로트나 납기, 비용 등 복지용으로도 상담할 수 있는 대응이 정비되었기 때문이다. 처음 시도하는 것도 있어 어디까지나 참고 출품 정도로써 제품도 전시하는 방향이다.

어패럴, 복지 도매를 중심으로 하는 내방객에게 타월 직기의 가능성을 이미지하기 쉽게 소구하여 간다.

村纖維(兵庫縣)는 면 100% 선염 직물을 중심으로 소로텍스나 T400 이라고 하는 PTT(폴리트리메틸렌 텔레프탈레이트)를 사용하여 면/마 혼용 등을 제안한다. 도비나 자카드 등의 조직에 대하여 다채로운 후가공으로 오리지널리티를 추구한다. 트랜드인 라메 사용으로도 다가 오는 춘하용으로는 투명감이 있는 라메를 사용하여 엘레강트한 광택감을 표현하고 있다.

출전하는 상품은 모두 자사 리스크로 비축하고 고급 미세스 존으로부터 캐주얼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QR 체제에 따른다. 현물 대응도 가능하다. 지금까지의 프리뷰전에서는 상사를 경유하여 새로운 여성 어패럴과 거래를 획득하는 등 실적을 쌓고 있다.

野口(愛知縣)는 리넨 보일 워셔라든가 포면 감각의 니트, 마 혼용 프린트 등의 닥아오는 춘하용과 더불어 05 추동용의 현물 대응에도 힘을 신는다.

스테인레스 섬유를 사용하여 워셔 효과를 나타낸 것, 안료 프린트 제품의 수세로 빈테이지감을 표현한 것 등, 다채로운 표현으로 독창성이 높은 소재를 제안한다. 이들은 東京, 南青山의 쇼룸에서 행한 전시회에서도 호평이었다. 복수의 산지 소재로 독자의 개발을 하여 항상 Only one 의 물건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2003 년 가을에 개설한 南青山의 쇼 룸에서는 장점이 강한 중소 어패럴을 중심으로 순조롭게 거래선을 확대. 연내에 100 개사로 넓혀갈 예정이다. 📖